

2013. 9. Vol 224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성못길에서

새하얀 억새꽃
스삭스삭 하늘 길 비질하는
산길을 걸어 다다른
양지바른 선산

늘 푸른 마음으로 호위하는
노송의 눈길이 머문 그곳에
금잔디 지붕을 덮고 누워계신 아버지

그라운 마음 향 내음에 실어
아버지 천년 유택을 맴돈다

아버지 등에 업혀 와서
등 굽은 소나무 밑에서 말타기하고
미끄럼 타고 놀던 곳
봄이면 바구니 들고 나물 캐러 쫓아다니던 언덕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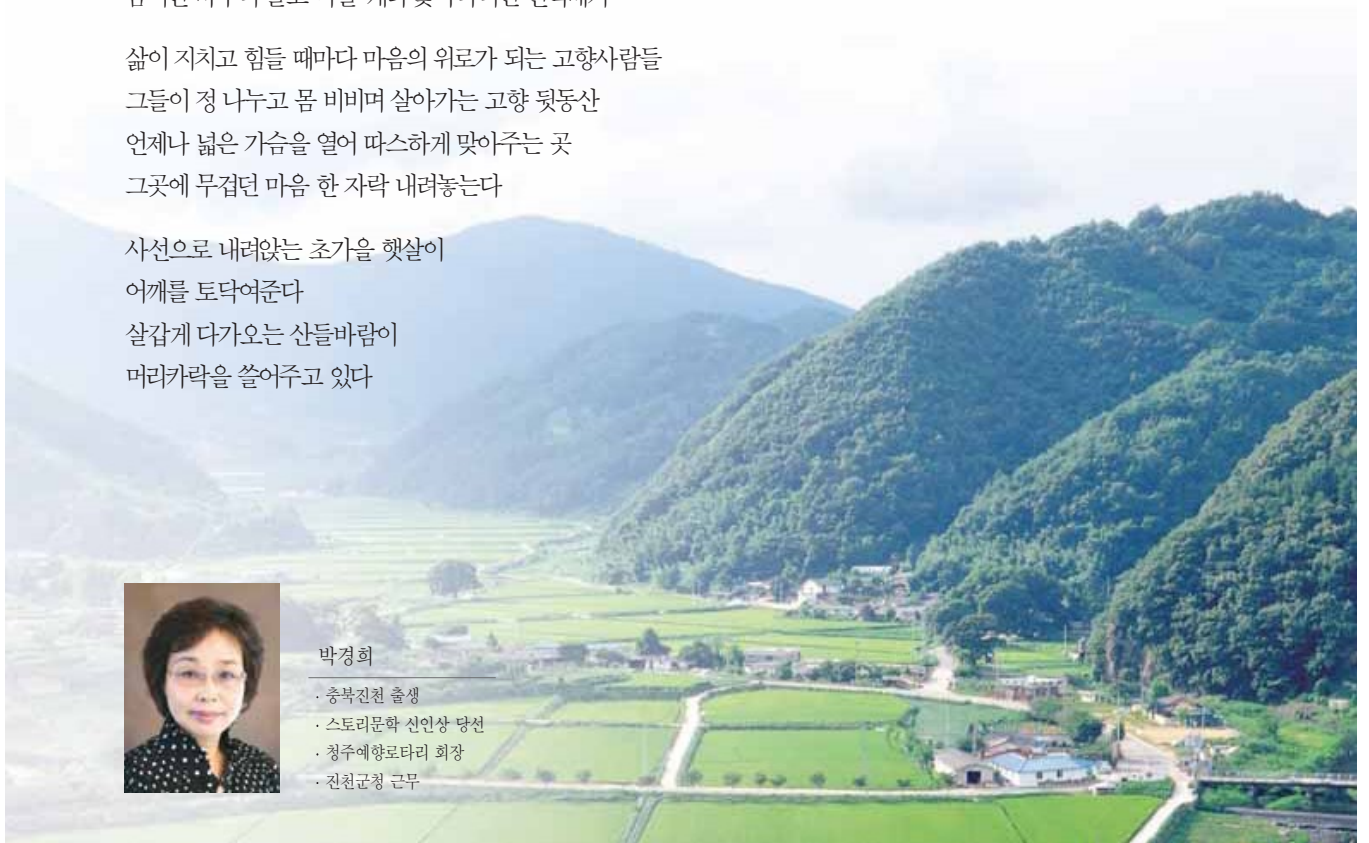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고향사람들
그들이 정 나누고 몸 비비며 살아가는 고향 뒷동산
언제나 넓은 가슴을 열어 따스하게 맞아주는 곳
그곳에 무겁던 마음 한 자락 내려놓는다

사선으로 내려앉는 초가을 햇살이
이깨를 토닥여준다
살갑게 다가오는 산들바람이
머리카락을 쓸어주고 있다



박경희

- 충북진천 출생
- 스토리문학 신인상 당선
- 청주예향로타리 회장
- 진천군청 근무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3. 9. Vol 224

Contents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단급호
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74개국
1,94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 04 과학비즈니스벨트 원안사수 총력전
- 06 충북도의회 제322회 정례회
- 충북도 제2회 추경·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의결
- 08 북부권·남부권 지역균형발전 방안 토론
- 10 행복정책 토론회·균형발전 연구용역 보고회
- 12 취득세 영구인하 반대
- 13 제9대 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 14 중국 우호교류 확대
- 16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료
- 17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참석
- 18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 25 5분 자유발언
- 26 주요 처리의안
- 28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의원논단
- 31 의정일기

●발행일 2013년 9월

●주 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F A X (043) 220-5119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광수

●홈페이지 <http://assem.cb21.net>

●발행처 충청북도의회

●전화 (043) 220-5123





“ 과학벨트 수정안 즉각 폐기하라”

도의회, 결의대회 · 상경투쟁 등 원안사수 총력전

충청권 상생 위한 기능지구 발전 방안도 요구

충북도의회가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원안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7월 3일 정부와 대전시 간 과학벨트 수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 곧바로 ‘충청권 공조로 탄생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1일에는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13명 도의원들이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500만 충청인의 공조와 협력으로 얻어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지구에 위치할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고 이 부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려는 과학벨트 수정안은 충청권의 공조를 파기한 것”이라며 “과학벨트 거점지구 계획변경 등은 충청권의 사전협의를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전시와 정부가 체결한 과학벨트 수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7일에는 도의회 신관 앞에서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원안 사수 결의대회’를 갖는 등 민간부문과 힘을 합쳤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대전시는 과학벨트 MOU를 즉각 폐기할 것’과 ‘충청권

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능지구 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25일에는 도의회를 비롯한 충청권 지방의원들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청권연대, 충청권 국회의원 등 150 여명이 국회로 상경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 폐기 촉구 및 원안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광수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한나라당의 제17대 대선공약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당초 충청권에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전국 공모로 추진하자 2011년 500만 충청인이 총궐기해 충청권에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지정된 것”이라며 “정부는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대전시도 아무런 검증 없이 명분과 실리가 없는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거점지구와 연계된 충청권의 의견을 전혀 묻지도 않은 채 정부와 야합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과학벨트가 당초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충청인의 단합된 힘과 투쟁으로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과학벨트 수정안 파기와 함께 충청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능지구 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도의회 과학벨트 원안 사수 투쟁 일지

2010년 7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기 조성을 위한 건의문 채택
2011년 4월	과학벨트 충청권 집중배치 건의문 채택
5월	충청권 조성 사수 결의문 채택 (충북지역 도의회, 시·군의회)
2013년 6월	과학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문 채택
7월 3일	과학벨트 기초과학연구원 입지 변경 반대 성명
7월 11일	과학벨트 충청권 공조 파기에 대한 규탄 성명
7월 17일	원안사수 결의대회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
7월 25일	과학벨트 수정안 폐기촉구 및 원안사수 국회 결의대회 (충청권 광역·기초의회,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청권 연대·충청권 국회의원 공동)
8월 22일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요구안 수용 촉구 (충북도의회, 청주시·청원군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

수정안 규탄 및 원안사수 결의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도민의 노력과 충청인의 공조협력으로 충청권에 유지했고, 충청권 4개 시·도의 합의로 대전을 거점지구로, 세종·천안·청원을 기능지구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초 거점지구인 신동·둔곡지구에 조성할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변경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은 거점지구를 기능지구화하여 다른 3개의 기능지구를 축소·폐기하려는 술책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조속한 기능지구 발전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과학벨트 수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힘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와 대전시는 과학벨트 MOU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과학벨트 사업추진 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개발을 함께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과학벨트의 기능지구를 구체화하고 국가산단으로 개발하라!

하나, 충청북도의회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과학벨트수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한다!

2013년 7월 17일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원안사수 성명서

과학벨트는 정부가 범정부차원의 폭넓은 논의와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국고로 부지를 매입해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국가백년대계의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대전시는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명분과 실리가 없는 수정안을 거점지구와 연계된 충청권의 의견을 전혀 묻지도 않고 정부와 야합해 추진했습니다. 이는 과학벨트를 누더기벨트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수차례 약속한 과학벨트의 정상적인 추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대전시가 명분 없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원안, 즉 당초의 기본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13년 7월 25일

과학벨트 수정안 폐기촉구·원안사수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8월 22일에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의회, 청주시·청원군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와 함께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거점지구와 유사하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법으로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충북도 제2회 추경 ·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의결

시민단체와 과학벨트 원안사수 결의대회도 개최

충북도의회는 7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정례회를 열어 충청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또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를 열고 의사 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개회 마지막 날인 7월 17일에는 도의회 현관 앞에서 충청북도의회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원안사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김광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의회 후반기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는 회기로 생동감 넘치는 의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

쓰는 의회,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자”고 주문했다.

충청북도 2회 추경예산

효과 미흡한 사업 등 총 14건에 34억 원 삭감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37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총 3조 6,573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일반회계가 1,467억 2,876만 9천 원(4.8%) 증액된 3조 1,756억 2,155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당초예산 보다 87억 7,248만 4천 원 감액된 4,817억 1,628만 6천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헌경)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벌여 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 등 총 14건에 34억 5,800만 원을 삭감했으며 세입 삭감액 31억 5,900만 원을 제외하면 2억 9,9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충청북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47억 9,728만 3천 원이 증액된 3조 6,541억 7,883만 9천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단양소방서 신축 사업은 단양군과 협의하여 대
체부지를 확보해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충북도·도교육청 2012회계년도 결산

충북도 28건, 도교육청 11건 지적사항 도출

충청북도의회는 제322회 정례회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각각 승인
했다.

이수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9명(이광희·김
종필 도의원, 임상혁 공인회계사, 박광석·조윤배 세무

사, 지선영·김길상·김영구 전직공무원)의 결산검사위
원들은 5월 22일부터 8일간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결산
내역을 검토했으며 5월 30일부터 12일간은 충청북도 소
관 결산을 확인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들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부당한 사
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지적사항 41건, 개선사항
5건, 우수사례 1건을 도출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해
부터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담당공무원의
변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돼 한층
더 철저하고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실시됐다.

□ 충청북도 지적사항(28건)

-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재검토사업 사전검토 철저
- △ 자치단체간 부담금 부적절 개선
- △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업비 예산운용 부적절
- △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국비 사업추진 부적절
- △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개선
-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절
- △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비 집행 부적절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보조사업비 정부 과잉배분으로
불용액 과다발생
- △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간비 집행 부당
- △ 아동급식확대지원사업 집행잔액 처리 부적절
- △ 물품구입 예산편성 부적절
-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대리지정 소홀
- △ 정수관리대상 물품 확보 미흡
- △ 공유재산 관리 소홀

- △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관리 소홀
- △ 계약관련 변상금 및 위약금 처리미흡
- △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사업비 불용액 과다 발생
- △ 기금 자치단체보조사업의 정산
- △ 세입조치후 반납고지서 미발부
- △ 허위세입 예산편성
- △ 세입예산 과목착오 계상
- △ 세입예산 중복계상
- △ 징수액과 세입편성액 불일치
- △ 출납폐쇄일 미준수로 결산 착오
- △ 도 체육회 운영비 부당 집행
- △ 도 체육회 사업비 편법 전용
- △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부담비율 불일치
- △ 징수결정액 세입예산 미편성

□ 충청북도교육청 지적사항(7건)

- △ 예비비 지출 부적절
- △ 민간보조사업비 정산·관리 소홀
- △ 사고이월 처리 부적절
- △ 과다 명시이월 부적절
- △ 예산집행 부적절
- △ 회계관직 대리 지정 소홀
- △ 공유재산 관리업무 처리 부적절

□ 개선사항(5건)

-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과오납반환 제도 개선
- △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산정 제도 개선
-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개선
- △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중앙정부 사업 추진 개선
- △ 시·도교육청 분담금사업 정산 개선

북부권 · 남부권 다양한

도의회, 권역별 토론회 열어

지역균형발전을 의정의 한 축으로 삼고 있는 충북 도의회가 균형발전 방안 모색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도의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유완백)는 지난 7월 18일부터 제천여성문화센터에서 북부권 지역균형발전 토론회를 연데 이어 19일에는 보은문화원에서 남부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북발전연구원의 원광희 기

획조정실장이 신수도권 시대 중심 충북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에 대한 기초발제가 있었다.

원 실장은 발제에서 충북지역균형발전 5대 추진 전략으로 △시장주의 접근 보다는 제도적 고객주의적 접근 △계층적 행정시스템보다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구축 △형식적 시·군 사업보다는 지역 체감형 특화사업 발굴 △하향식 시설위주 사업

북부권 토론회

충북대학교 이만형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세명대학교 권태호 교수, 공군사관학교 김윤수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김용승 교수, 제천시청 김홍래 전략산업단장, 엄태석 제천민예총 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 나선 권태호 교수는 사람중심의 균형발전 정책, 도시군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서부터 소단위 세포 확충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윤수 교수는 “균형발전 정책에 지역발전을 위해선 주민과 의회, 기업의 파트너십이 필요한데, 기업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 후 “사람, 기업, 기술을 끌어들이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물론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교수는 “창조경제에 기반을 두고 균형발전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5대 추진전략에 일자리 창출·창업 및 중소기업 진흥 정책 등 2개 전



▲ 7월 18일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에서 지역균형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북부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략이 더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의 질의답변에서는 괴산의 한우농가는 “20~30대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기반시설과 귀농인 육성 및 혁신역량을 갖춘 리더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충북도의회 권기수 도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 보통세 징수액의 5%를 1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 방안 논의

전문가·주민 목소리 청취

에서 상향식 프로그램 중심사업 확대 △단편적, 형식적 자문에서 통합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는 도의회에서 발주해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정책 모니터링 연구용역의 집필책임 맡고 있는 청주대학교 조철주 교수가 맡았다.

조 교수는 지니계수(GINI)를 이용한 △연도별 지역 간 불균형발전도 변화 모니터링 결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분야별 사업예산 공헌도 분석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분석을 통한 예산 적정배분 모형 수립 결과를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관련한 토론자와 지역주민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자는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지역의 추천을 받아 지역문제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남부권 토론회

충북대학교 이만영 교수를 좌장으로 공군사관학교 김윤수 교수, 장안대학교 김효근 교수, 보은군지역발전협의회 정진원 간사, 주교종 대청호 주민연대 대표, 충북대학교 황재훈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정진원 보은발전협의회 간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낙후지역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낙후지역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교종 대표는 “균형발전 사업을 다변화하고 다양화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남부 3군은 대청댐, 속리산 등으로 자연적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재훈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고 객관적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균형발전 지수 향상 정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아 평가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보은의 한 주민은 낙후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특별한 재원배분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으며,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대한 실행력이 담보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 김재중 의원은 균형발전 사업이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돼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7월 19일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남부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민 개개인의 행복수준 높이는 정책 모색

정책복지위, 행복정책 토론회 열어 핵심과제 논의

충청북도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정책 모색에 발 벗고 나섰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지난 7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 도민, 공무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정책복지위원회가 수행한 ‘주관적 행복지수와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한 충북도민 행복정책 개발 연구’용역의 연장이다.

각계 전문가 및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민 행복을 위한 실천적인 핵심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참여연대 사회조사연구소 김현기 소장은 ‘주관적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한 충북도민 행복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충북도민 행복교육원 설치운영 △행복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박사는 ‘건강한 지역사회, 행복한 가정공동체를 위한 아버지 행복캠프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버지들이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하면서 평등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생애 전반에 걸쳐 아버지 자신이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가칭 ‘아버지 행복 캠프 건립’을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정책과제 실천 방안과 보완대책이 논의됐다.

충북대 주거환경학과 박경옥 교수는 20~30대의 주거만족도가 낮으므로 이들 가구에 대한 주거수준 향상 방안을 제시했으며 청주 YWCA 정은경 사무총장은 도



▲ 7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 도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마을 공동체와 농촌마을 공동체 특성이 다르므로 그에 맞는 별도의 계획과 지원방안 마련을 제기했다. 또 새생명지원센터 이준연 센터장은 아버지 행복캠프가 아버지들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문화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은 행복캠프가 청소년 직업·가족 상상체험관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 짓는 인문학적 상상과 삶이 어우러진 문화적 직업체험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장선배 정책복지위원장은 “그 동안의 많은 정책이 인프라 확충 등 물리적 요건 충족에 치우쳐 왔다”면서 “도민 개개인의 행복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행복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핵심 정책과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충청북도와 협의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예산배분 방향 등 제시

균형발전특위, 균형발전 모니터링 연구용역 보고회

도의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유완백)는 지난 8월 13일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김광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관, 충북테크노파크, 충북발전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정책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은 도내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4개월간 충북테크노파크에 의뢰했으며 테크노파크 연구원들과 청주대학교 조철주 교수, 영동대학교 오상영 교수, 청주대학교 장명준 교수가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

연구용역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충청북도의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향후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면 좋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용역 결과 충북지역불균형 지니계수(CBGI)는 2007년부터 하락되면서 일부 불균형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헌도는 건설교통부문(43.6%), 문화체육관광부문(21.0%), 2차 산업부문(20.5%), 보건복지환경부문(14.9%) 순으로 조사돼 지역균형발전에 건설교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부문별 예산배분 가이드라인을 지역발전도와 부문별 공헌도 등 적정성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적극적)와 지역 낙후도, 지역의 규모, 집중지원 선호도 등 지역의견을 반영해 도출한 결과(점진적)로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적용은 예산 규모, 배분 시 여건 등에 따라 $\pm 5\% \sim \pm 20\%$ 까지 다양하게 적용하

는 정책적 판단 기준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7월 18~19일 양일간 개최된 북·남부권 지역균형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충북도균형개발과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군단위가 아닌 읍·면 중심의 소단위 세포 확충형 사업 필요성과 자연적 규제 정도(충주호·대청호 수변규제, 소백산·월악산·속리산 등 국립공원규제)를 낙후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3단계 균형발전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주도형 균형발전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8월 13일 충북테크노파크에 의뢰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정책 모니터링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유완백 위원장은 “본 용역에서 처음 발표된 지니계수, 예산배분 모형 등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보완이 필요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면서 “연구용역이나 토론회가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고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 반대 성명서 발표

충청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김희수 행정문화위원장과 도의원들은 8월 20일 최근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추진 중인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주요내용은 “취득세는 충청북도의 지방세 중 54.7%를 차지하는 핵심 자치세원으로 현행 4%인 취득세를 1~2%로 영구 인하하면 사회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족분을 지방세 인상으로 일부 충당토록 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이라는 단기적 혜택으로 주민들의 세부담을 영구적으로 높



▲ 8월 20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명목으로 추진 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알팍한 술수이며 더욱이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를 아예 배제시킨 것은 정부가 지역민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처사라고 주장 했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건의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항공사 선진화 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내용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전략 수립 컨설팅 시행계획”을 가결함으로써 사실상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 의회는 정부의 청주국제 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청주국제공항 시설투자의 조속한 이행입니다. 활주로 확장, 화물청사 증축, 여객청사의 대폭적인 리모델링,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연장 등 시설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노선 다변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정부에서는 국제노선 확충, LCC 전문공항 지정, 에어로폴리스 조성지원 등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선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이 공공성과 책임성을 다하는 국가 기간시설로서 행정수도 관문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항 운영권 매각 검토 이전에 공항 활주로 확장 등 활성화 대책을 우선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3년 7월 1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제9대 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충청북도의회는 7월 1일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에 제출되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명을 선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선거구와 각 상임위원회 안배 등을 감안하여 선임했으며

위원들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은 위원장에 임헌경 의원, 부위원장에 이수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위원에는 김도경, 김봉희, 김형근, 노광기, 손문규, 윤성옥, 이광희, 전용천, 최미애, 황규철 의원이 선임됐다.

임헌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정 각오

원칙과 합리적인 예산심의로 충북발전에 기여할 터



임 헌 경 의원

제9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더욱 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은 미세한 국제정세의 변화도 지방경제에 곧바로 투영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양적완화와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정부도 SOC지출 동결과 각종 지방세원 감세를 추진하고 있어 재정여건은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해 낭비성 행사를 억제하고, 도민들의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경상적 경비 등을 삭감해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내실 있고 합리적인 예산 성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하지 않게 적정히 집행되고 있는지 전문지식과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확인·평가하고, 과도한 예산계상과 특정분야에 대한 예산편중 등 관련 제반규정 준수여부를 꼼꼼히 따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며 도민의 현세가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보다 더 구체화 시키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민의를 대변자’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인대와 우호교류의향 체결

도의회 방문단, 흑룡강성과도 상호교류 확대 협의



▲ 8월 7일 김광수 의장을 단장으로 한 충청북도의회 대표단 일행이 중국 길림성 인민대표대회(주임 왕루린, 王儒林)를 방문해 우호교류의향을 체결하고 상호 교환했다.

김광수 의장을 단장으로 한 충청북도의회 대표단(강현삼, 노광기, 심기보, 이광희, 이수완, 황규철)은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5일간 중국 흑룡강성과 길림성을 공식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방안 등을 협의했다.

대표단은 8월 5일 흑룡강성 의회 역할을 하고 있는 인민대표대회(주임 왕헌괴, 王憲魁)를 방문해 회견을 갖고 양 지역의 교류를 보다 실질적인 우호교류로 발전하도록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7일에는 길림성 인민대표대회(주임 왕루린, 王儒林)를 방문해 양 기관 간 우호교류협약을 맺고 앞으로 상호 우호협력증진과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펼치기로 했다. 충청북도의회는 이번에 길림성 인대와 우호교류협정을 맺음으로써 중국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중에서 2곳의 성 인대와 우호교류협정을 맺게 됐다. 특히 길림성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의 상호 교류협력 확대를 바탕으로 도내 기업인과 민간단체 등 민간 교류에도 활기를 불어 넣게 됐다.

김광수 의장은 우호교류협정 체결 후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 문화권이라는 공통성과 지정학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많은 문물을 공유해 온 성숙한 이웃”임을 강조하고



▲ 충청북도의회와 길림성 인민대표대회와 체결한 우호교류의향서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한·중의 관계처럼 양 의회가 새로운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한다면 충청북도와 길림성 양 지역에 크나큰 번영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의회는 중국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와 2001년 우호교류 체결 이래 12년간 격년제로 상호방문하고 있다. 중국 길림성 인민대표대회와는 지난 2008년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래 무역박람회, 제천 한방엑스포,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참가 등 경제, 문화, 예술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왔다.



▲ 8월 5일 충청북도의회 대표단 일행이 중국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주임 왕헌괴(王憲魁))를 방문해 양 지역의 교류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베트남 빈푹성 대표단, 도의회 방문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이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충청북도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응웬테즈응 부서기를 단장으로 한 베트남 방문단 15명은 이번 방문에서 양 지역 간의 우호교류 증진 및 확대방안을 협의했다.

대표단은 22일 김광수 의장을 예방하고 농업연수, 공무원 상호교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방안 등 양 지역의 실질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 오후 도내 농기계 생산업체인 신흥기업사와 베트남 빈푹성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자화전자를 방문해 사업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본 후 청남대를 견학했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 기관의 우호교류 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양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회 응웬테즈응 부서기를 단장으로 한 베트남 대표단이 15명이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해 양 지역 간 농업연수, 공무원 상호교환 등 실질적인 우호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구촌 최대 물축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료

75개국 1천940명 참가...역대 최대 규모

지구촌 최대 물축제인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8일간의 화려한 레이스를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세계를 향한 꿈과 도전’(Rowing the World)을 주제로 개최된 개회식에는 만기문 유엔사무총장, 데니스 오스왈드 FISA 회장, 유정복안전행정부장관, 이시종 조직위원장, 이종배 집행위원장, 김광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등 국내외 인사와 세계 각국의 조정선수단 등 2만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물의 도시 충주가 세계적인 수상레저 관광휴양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국민적인 자긍심과 일체감 조성은 물론 충북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는 75개국 1,94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선수들의 입국에서부터 교통, 숙박, 편의시설, 안전문제까지 한꺼번에 챙겨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 대회로 평가받았으며, 대회 기간 경기장 주변에서 다양한 전시, 공연과 이벤트, 체험행사 등이 다채롭고 풍성하게 열려 대회의 규모를 가늠케 했다.

입장권 판매도 당초 목표 6만 장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리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이번 대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는 2009년 8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직후부터 대륙별로 목표 국가를 정해 국가별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 장비를 지원하거나 대회 항공권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형 유치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비인기 종목인 조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조정체험학교와 길거리 조정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그동안 펼쳐왔던 다양한 홍보활동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도 이번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방문하여 준비상황과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세계대회에 걸 맞는 시설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것과 같이 1천16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천44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성과중 하나는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경기장’이라는 점을 국제조정연맹(FISA)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은 1천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랜드 스탠드’와 피니쉬 타워, 도핑센터, 마리나 센터, 조정경기용 배 200대를 보관할 수 있는 ‘보트 하우스’ 등 최신 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여기에 TV중계를 위한 길이 2.4km의 물 위에 떠있는 ‘중계도로’는 탄금호 조정경기장의 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 종료 후 마리나 센터, 보트하우스, 피니시타워 등 경기 관련 시설은 전시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탄금호를 한국 조정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사업이 펼쳐질 계획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참석

도의회, 충북의 전진에 큰 관심과 응원 요청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8월 24일 개막한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참석해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반기문 총장은 축사를 통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기쁜 마음으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축하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25일 고향인 행차마을과 음성군에서 마련한 환영행사에 참석한 후 충주시청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인재 양성’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그리고 이날 오후 충주의 한 호텔에서 지역원로, 이시종 지사, 김광수 도의장,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김광수 의장은 간담회에서 “언제나 고향을 잊지 않고 있고, 이번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도 참석해 힘을 실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며 감사의 뜻을 전



▲ 8월 25일 김광수 의장이 간담회장에서 반기문 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하고 또 “앞으로도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신수도권 시대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고 있는 우리 충북의 전진에도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 이원중 지발위원장 방문해 현안 건의

천안~청주 공항 간 복선전철화 등 6건 지원 요청



▲ 7월 26일 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원중 위원장을 방문해 축하인사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충북도의회는 7월 26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중 위원장을 방문해 축하인사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광수 의장과 김동환 부의장, 유완백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행정문화위원장, 손문규·최진섭 의원 등이 함께 지역발전위원장 취임 축하와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전했다.

특히 충북의 주요 현안인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화, 중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청원·청주 통합 지원 등 6건의 현안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정부예산 반영에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이원중 위원장은 “각 부처와 협의하고, 재정여건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조만간 지역발전위에서 행복생활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계획”이라며 “지역실정에 맞게 몇 개 시·군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지역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2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중)는 제322회 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등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7월 1일 개최된 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등을 심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2012년도 결산심사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13명으로 구성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김경용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건제·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의회 위상 제고와 상시 연구·연찬하는 의회 상을 구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

입·세출 예산안」및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 했다.

의회사무처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3억 97만원보다 2,319만원이 증액된 83억 2,416만원으로 0.28%가 증가되었으며, 베트남·중국과의 자매결연 지원을 위한 국제교류 통역비, 속기사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16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예산 효율화를 위한 7,841만원의 예산절감분이 감액되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액은 3억 3,840만원이 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91억 2,232만원으로 이중 84억 9,824만원이 집행되고 학술연구용역비 1,950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액 1,600만원,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유보액 1억 3,654만원과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실집행잔액 4억 5,204만원 등 6억 45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다.



▲ 7월 1일 이광희 의원 외 4명이 연구한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보고 등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22회 정례회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



▲ 7월 2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에서는 제322회 정례회를 맞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7월 2일과 3일은 2012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예산편성과 각종 기금의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도정정책분석 행사운영비 등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용자확대, 청소년 육성기금의 다양한 정책사업 발굴 등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7월 2일 시중금리의 하락 추세에 대응해 현재 2.5%인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2.0%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동 조례안은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발행이율 인하와 융자이율도 현행 3.5%에서 3.0%로 인하할 방침이다.

7월 4일과 5일에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상반기 실적이 미흡한 일부사업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시·군 청소년 상담센터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라고 주문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7월 8일과 9일에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 사업비 2,200만 원 등 사업계획 대비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를 삭감했고, 2012년도 사업실적이 미흡했던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저소득 장애아 가정의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줄 것과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당부했다.

한편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7일 소관 집행부서와 현안 간담회를 열어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받고 치매사업에 비해 다소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중풍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개발과 예산투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22회 정례회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반대 대정부 건의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별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받고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 및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하고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위원들은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이 공공성과 책임성을 다하는 국가 기간시설로서 행정수도 관문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항 운영권 매각 검토 이전에 공항 활주로 확장 등 활성화 대책을 우선 추진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심기보 의원은 “2012년도 세입예산계상액과 실제 수납액의 오차율이 10%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세입을 과다 계상할 경우 수입액 부족으로 적자발생 요인이 되며 과소 계상할 경우 당해연도에 투자할 재원의 사장을 초래하는 바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오차율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김봉희 의원은 자치연수원 귀농 예비반 교육과 관련해 “귀농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냐 만큼 교육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활성화를 시켜 도시민들의 귀농에 필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형근 의원은 “최근 잦은 충북 공무원의 비위 사건 발생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시·군 감사결과를 놀라운 수준이다”라고 지적한 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 형식적인 토론회나 교육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특정사안이나 사례중심의 토론회와 교육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임 현 의원은 도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시행 초기인 만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추진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지숙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감사와 관련해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로 혜택이 누락되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잘못된 수급자 선정으로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 7월 2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22회 정례회

세계유기농엑스포 철저한 준비 주문



▲ 7월 1일 정례회에 따른 위원회 소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헌)는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받고 ‘2015 세계유기농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7월 2일에 개최된 농정국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하여 충청북도가 유기농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2015 세계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사전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한·중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조사료 재배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7월 4일에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정확한 수요예측과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7월 8일에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협동조합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과 조합원간의 정보공유, 우수사례 등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념행사와 워크숍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당부했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지속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착한가격 업소에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7월 4일에는 ‘생명 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해 도 산하직속기관 및 사업소 옥상과 부지 등에 민간투자방식의 태양광발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 했다.

○ 건설소방위원회 제322회 정례회

현안사업 추진 · 재난예방 대책 촉구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광진)는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심사에서는 몇몇 사업이 100%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남은 사유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 부서에서 예산확보에만 주력한 나머지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의 신속한 추진, 2012년도에 가물막이가 유실된 단양수중보의 조속한 건설, 소방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전담의용소방대 활성화,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소방차량 교체사업 등 현안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는 사업기간, 총사업비, 기투자금액

등 부실한 자료 제출, 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형평성, 다양한 신규 사업으로 인해 기초 자치단체에 부담만 가중, <화장품·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이 선행된 후 세부사업 추진>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해 후반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지난 7월 3일에는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각각 원안 의결했다.

강현삼 의원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7월 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실국장급 및 부자치단체장의 잦은 인사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실국장급의 평균 재임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번 인사가 발표된 시점이 '주요업무 보고',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계수조정'이 열리는 중요한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로 인해 몇몇 국장들은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채 심사에 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 7월 2일 건설소방위원회는 제1차 위원회를 열고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 7월 5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 관계자로부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7월 5일 제 322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추진 중인 각종 교육시책에 대한 점검과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필 위원장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앞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것과 체육교육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주문하고 도내 우수 학생의 타·도 유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이광희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과다한 지출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도교육청에서 단체교섭 중에 있는 단체들과 성실히 교섭에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병학 교육의원은 오창 제2산업단지 내 학교신설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학교수용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통일·안보교육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통일·안보 의식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전응천 교육의원은 창의·인성 교육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세밀한 질문과 더불어, 북부권역의 기숙형 중학교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철저한 추진을 주문했다.

최진섭 의원은 교육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제주교육원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재성 교육의원은 학교장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하여 열린마음으로 교직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과 수업혁신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7월 9일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22회 정례회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제2회 추경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헌경)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해 충청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세입 3조 5,290억 3천만 원, 세출 3조 2,266억 8천만 원으로 3,023억 5천만 원의 차입잔액이 발생했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액 768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억 6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247억 9천만 원 등이다.

이번 심사에서 4대강사업의 추진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 발생,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과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부진 등을 지적했으나 결산에 커다란 흠결은 없다고 판단하고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조 2,591억 2,406만 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차액이 3,117억 6,931만 원 발생했다.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3.1%인 711억 4,256만 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예산의 방만한 운영으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79억 5,628만 5천 원이 증액된 3조 6,573억 3,783만 9천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가 1,467억 2,876만 9천 원(4.8%) 증액된 3조 1,756억 2,155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당초예산 보다 87억 7,248만 4천 원 감액된 4,817억 1,628만 6천 원이다.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열띤 질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 등 총 14건에 34억 5,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입 삭감액 31억 5,900만 원을 제외한 2억 9,9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충청북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47억 9,728만 5천 원이 증액된 3조 6,541억 7,883만 9천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단양소방서 신축 사업은 단양군과 협의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해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 7월 10일 2012 회계연도 충청북도 및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간담회를 실시했다.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인사를 지켜보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자 인사로 신임 정책기획관과 경제통상국장은 각각 바이오환경국장과 균형건설국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현재의 보직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번 인사가 발표된 7월 12일은 충청북도의회 제322회 정례회 기간으로 추경예산, 결산, 업무보고 등 중요한 의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일 교체된 국장 몇 분은 업무과약도 전혀 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심사에 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비단 실·국장 인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시·군의 부단체장 또한 임기가 길어야 1년입니다. 시·군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

할 때가 되면 본청으로 다시 복귀해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인사는 모든 조직의 기본이라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돌려막기, 보은성, 나눠주기, 권력연장을 위한 인사를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제자리를 찾은 사람이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충북도와 도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보직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을 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가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강현삼 의원

과학벨트 기능지구 발전을 위한 제언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에 대해 충청권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충청권 3개 시·도와 기존 공조를 깨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정부와 대전시 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과학벨트’ 수정을 위한 협약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가 공약과제로 충청권 조성을 제시했고 2011년 500만 충청인의 공조와 협력으로 대전을 거점지구로, 세종·천안·청원을 기능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예산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 부결, 첨단의료복합단지 반쪽 추진, 과학벨트 수정안 추진 등은 160만 충북도민과 500만 충청인을 홀대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능지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응용화 전문단지 즉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 및 예산지원 확대 요구입니다.

끝으로, 과학벨트 추진에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충청권이 함께 상생과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이수완 의원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제322회 정례회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적극 실현하고 태양광 산업선도 道로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
- 도 산하기관(직속기관·사업소 등)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친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 대상시설 : 충북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자치연수원) 외 6개소
- 사용목적 : 건물 옥상에 태양광 민자발전시설 설치
- 사용기간 : 설치일로부터 15년간 ● 임대료 : 년25,000원(kw당)
- 허가조건 : 10년간 유상으로 임대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기간 연장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권 (대표발의 : 김재중 의원)

[제안이유]

-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지방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등에 대한 본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주요내용]

-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2012~2016년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정규모 : 17조 8,423억원
 - 일반회계 : 15조 4,495억원
 - 특별회계 : 2조 3,928억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 제9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금년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예산결산 업무에 대한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해 나가고 심사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의회의 예산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구성목적 : 의회에 제출되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위 원 수 : 13명 이내로 한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종필 의원)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추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 개선방안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추가
- 재난관리기금 분임 기금운용원 지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 위촉직 위원 수당 등의 지급기준 신설 등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주 의원)

[제안이유]

-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주요내용]

- 제명을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
-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신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관광산업 발달 · 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인한 관광객 증가 및 귀농 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이나, 제천소방서에서 32km 떨어진 단양119안전센터의 소방력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어 재난대응 소방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단양소방서 신설에 따른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단양소방서 신축)
- 위 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7
 - ※ 부지 : 1,530㎡(단양군에서 신축부지 제공)
 - 사업규모 : 연면적 2,300㎡(지하/지상3층, 철콘)
 - 사업비 : 3,868,740천원(건축 3,650,100 / 설계비 등 218,640)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4조에 따라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도비(300백만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반영하고, 이 금액과 기존에 별도 예치된 금액을 합한 337백만원을 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 · 의결을 받고자 함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요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의 근거조항인 요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의 전면개정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안

(제안자 : 행정문화위원장)

[제안이유]

-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 제 10차 회의내용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전략 수립 컨설팅 시행계획’을 가결함으로써 사실상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이 공공성과 책임성을 다하는 국가 기간시설로서 행정수도 관문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항 운영권 매각 검토 이전에 공항 활주로 확장 등 활성화 대책을 우선 추진할 것을 건의함

[주요내용]

-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역 개발채권 유통금리가 발행이율에 근접하고 있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인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 금리하락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하 권고(안전행정부)

[주요내용]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 인하 ● 연 2.5% 복리 → 연 2.0% 복리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주 의원)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 도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제2조(정의) 삭제 → 조례 내용과 불 부합하며, 상위법의 내용과도 불일치함



의정 활동 이모저모



▲ 충청북도의회는 7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벨트 수정안은 충청권의 공조를 파기한 것으로 과학벨트 거점지구 계획 변경 등은 충청권의 사전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충청북도의회는 8월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청원군의회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와 함께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충청북도의회는 7월 25일 충청권 지방의원들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연대, 충청권 국회의원 등 150여명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국제비즈니스과학벨트 수정안 폐기추구 및 원안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8월 20일 김광수 의장과
도의원들이 읍지연습 훈련
장을 방문해 상황을 듣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7월 16일 ▶
제322회 충청북도 의회 정례회
기간 중 충주세계조정선수권
조직위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
했다.



▲ 김광수 의장이 7월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무처 직원 20여 명과 함께 성심노인요양원을 찾아 목욕
봉사과 청소를 하며 나눔과 섬김의 마음을 전했다.



▲ 김광수 의장이 전국기능경기
대회에 출전하는 충북대표
선수단을 방문해 격려했다.



하 재 성 의원
(교육위원회)

학교폭력, “가정·사회의 교육적 기능 상실 탓”

‘돈 주면 때린 애를 때려줍니다!’ 최근 학교 앞 전봇대에 붙어있다는 전단지의 내용이다.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돈만 주면 무서운 ‘삼촌’들이 자녀를 괴롭힌 가해학생에 보복하거나 학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식으로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업체도 있다니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공감하지만 이런 세태 또한 참으로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는 물론 교육당국과 경찰까지 팔 걷고 나섰지만 오히려 대기업처럼 세분화·분업화되어 이제는 ‘주의·관심’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이렇게 청소년폭력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가정교육 기능의 상실이 주원인이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비행이나 일탈, 공격성에 대한 욕구가 잠재해 있다.

다만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교육과 사회화 과정을 밟아 왔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로부터 우리의 가정은 기본적인 사회성을 먼저 밥상머리에서 가르친 뒤 학교로 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의 그 교육적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다. 누가 뭐래도 기본생활습관 정착과 인성교육의 출발점은 가정이다. 부모야말로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 학생 비행이 심각해지는 경향에 비해 학교에서의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약화되어 있다. 물론 잘못된 행위를 무조건 처벌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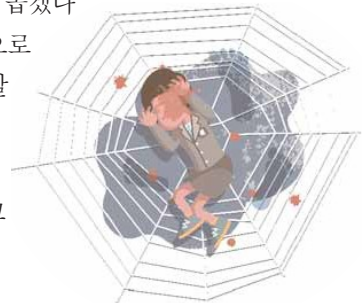
선의 방안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은 약화된 학교의 지도권한을 악용하고 인권을 앞세워 아무런 가책이나 반성이 없이 비행과 일탈을 반복하고 있다. 수업 중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며 폭언이나 폭력을 휘둘러도 끝까지 껴안고 가야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셋째, 우리 사회의 ‘생활지도’와 ‘인권교육’의 혼동이 현장의 교사들을 또 한 번 무력감에 빠뜨리고 있다. 이제는 ‘인권’을 앞세워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마저도 따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이런 ‘생활지도’와 ‘인권교육’의 혼동 때문에 학교에서는 폭력·비행에 대한 교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종의 부작용이다. 상급학교 진학과 같은 수단적 가치가 중시되고, ‘학력(學力)’보다 ‘학력(學歷)’이 우선하는 사회에서는 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는 무시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생활지도는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과 서로를 인정하고 돕겠다는

‘책임공유’의 정신으로 상호작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제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처할 때이다.





중국 흑룡강성· 길림성 방문기



심 기 보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올해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맺고 교류를 시작한 지 21년째이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국과 정치·외교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분야에서 문화·관광분야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정부에서도 중국의 주요 도시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는 등 교류증진에 힘쓰고 있으나, 실질적인 공동 발전 파트너로서의 관계 정립과 실천적 교류에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새로운 국제교류의 표준 모델 창출과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발전적 상생 교류 협력 방안 등 선제적 국제 의정활동을 펼친 중국 동북지역 방문 성과와 방문 결과를 통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지난 8월 5일부터 4박 5일의 일정으로 충청북도의회(의장 김광수) 대표들과 함께 중국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흑룡강성 및 길림성을 공식 방문하여 상생적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우호교류의향서를 교환하는 등 상호간의 유대와 신뢰를 깊이 나누었다.

우선 8월 6일 방문한 흑룡강성과는 경제·관광·문화분야에 있어서 협력관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청주와 흑룡강성 하얼빈 공항간의 부정기 노선을 정기 노선으로 개설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는 등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양 지역 의회 차원에서 충북의 대표적인 IT, BT 산업과 흑룡강성의 풍부한 석유자원 농업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동홍보관 설치, 민간교류협의회 구성과 제도적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민간중심의 경제·관광·문화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중국의 농업대성(農業大省)이자, 연평균 경제성장률 12%를 자랑하는 발전의 중심지인 중국 길림성과 우호교류의향서를 교환하여 향후 양 기관간의 다양한 우호교류를 약속하였으며, 기업인과 민간단체 등의 민간교류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문화적·경제적 실리를 얻도록 하였다.

중국 방문 결과에 따라 본 의원은 세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기 위한 하얼빈역 기념비를 지방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추진할 것, 둘째, 한중 청소년간의 상호교환 홈스테이 등의 교류방안을 추진할 것, 셋째, 중국 동북지역 간 연락소를 설치할 것 등을 신중히 제언하는 바이다.

중국 동북지역은 1억 595만명의 인구를 가진 매력적인 소비시장이다. 현재 중국 동북지역은 중국 정부에서 도시화,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개선과 경제부흥의 거점지역으로 삼고 있는 곳으로 앞으로 경제적·실리적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우리 도내의 IT, BT 및 화장품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극 동참하여 활발하게 중국 동북지역 시장에 진출하고, 이로 인해 신뢰가 증진되고 교류가 활성화되면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하고 우수한 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날인),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 ~ 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b.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b.cb21.net>